

## 오상원의 「황선지대(黃線地帶)」 연구

— 전후 기지촌의 의미와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탐색

김 성 은\*

### 요약

오상원의 『황선지대』는 한국 전후의 현실과 인간의 존재론적 문제를 구현한 중편소설이다. 본고에서는 ‘장소의 배치’가 텍스트의 의미 형성에 중요한 장치라고 보고 ‘기지촌’과 ‘미군 기지’, 그리고 ‘기지촌’과 ‘과거 이북’의 관계성을 살펴보았으며, ‘기지촌’과 ‘미군 기지’를 연결하는 ‘땅굴’ 파기에서 나타나는 작중 인물들의 기투 행위를 분석하였다. 이로써 ‘한국 전후 사회의 기지촌이 지니는 장소성’의 의미와 ‘냉전 시대의 신식민주의 체제 하에서 사유해야 했던 존재론적 문제’를 고찰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황선지대』는 한국의 전후 공간을 미군 기지와 기지촌이라는 두 축으로 이분화하여 서로 대비시킨다. 기지촌은 미국의 물자와 원조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당대 한국 사회의 외세 의존적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였다. 『황선지대』에서 이상화된 장소처럼 묘사되는 미군 기지는 실상 기지촌 인물들의 예측과 비참한 삶을 지속시킨다는 점에서 유토피아로 가장된 곳이다. 반면 기지촌은 전쟁 이전에 정상으로 간주되었던 삶의 방식과 가치가 무너진 전후의 시대적 분위기를 환기하며, 열강의 영향권에 놓여 주체성을 상실해야 했던 신식민주의 체제 하의 한국의 위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황선지대와 이북의 고향은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대립선상에 놓이지만, 신식민주의에 주목할 경우에는 각각 미군정과 소련 군정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응 관계를 이룬다. 『황선지대』는 전망이 부재한 현실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마주하기 위한 존재론적 탐색을 시도한다. 이것은 땅굴을 파서 기지촌을 탈출해 자신만의 유토피아로 탈주하고자 하는 작중 인물들의 기투 행위에서 드러난다. 이때 땅굴은 전형적인 한계 상황의 형상

\*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화인 동시에, 피투적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스스로 실존적 존재를 구성해나가는 인간 현존재의 기투의 무대로서 제시된다. 『황선지대』에는 실존적 기투는 존재에 대한 답을 얻음으로써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행되는 과정으로서 유의미하다는 작가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주제어: 오상원, 황선지대, 전후, 기투, 장소(성), 신식민주의, 실존, 기투

## 목차

1. 서론
2. 전후 공간의 이분화
3. 일상 복귀의 불가능성과 신식민주의 비판
3. 피투적 기투와 존재론적 탐색
4. 결론

## 1. 서론

한국전쟁은 휴전 이후 남북 분단으로 인한 고향 상실과 이산가족, 미군 주둔 등의 문제를 남겼다. 전후의 폐허화된 공간에서는 문단의 자성과 함께 기존의 문학적 정신과 창작 방법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다. 이러한 ‘화전민 의식’<sup>1)</sup>을 바탕으로 전시대적 문학 의식의 한계를 극복하며 전시 및 전후의 극한적 현실을 천착하고자 했던 전후 신진 작가들의 작품들을 문학사에서는 ‘전후문학’으로 명명해 다루어왔다. 기존의 연구들은 전후소설을 ‘전쟁에 대한 체험·증언·치유의 문학’이라는 종합적 개념으로 파악하며,<sup>2)</sup> 주로 비극적 현실을 서사화하는 고발문학적 성격을 분석하거나 서

1) 이어령은 전후 신진 작가들의 세대적 자의식을 폐허가 된 현실에서 화전민과 흡사하게 황무지를 일구고 그곳에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개척하는 일꾼의 자세에 비유했다. (이어령, 『화전민지역』, 『저항의 문학』, 경지사, 1959, 10면.)

2) 김윤식, 『않는 세대의 문학』, 『현대문학의 논리』, 일지사, 1974, 232-233면. (엄해영, 『한국전

구 전후문예사조의 수용과 관련한 작중 인물의 내면 의식을 고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왔다. 이 같은 연구 경향은 시대 유형적 분류에는 용이하나, 각 작품의 특질을 보여주는 개별적인 창작 기법과 형식을 다면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대표적인 전후 작가로 평가되며 대개 전후 신진 작가들과 더불어 주제 및 경향별로 논의되어온 오상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오상원은 새로운 인간 존재를 발굴해낸 1950년대 신세대 작가로 분류된다.<sup>3)</sup> 이래, 주로 인물의 의식이나 행동 분석을 통해 작품의 실존주의 및 휴머니즘적 경향을 읽어내는 방식으로 연구되었다.<sup>4)</sup> “최초의 전쟁문학”으로 평가받음<sup>5)</sup> 오상원의 소설 등단작 『유예(猶豫)』(1955)에서부터 그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전쟁 문제가 주로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나 휴머니즘적 주제를 구현하는 ‘의식의 흐름’, ‘내적 독백’ 기법으로써 관념적으로 형상화되었다는 논의가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반면 인간 내면의 탐구라는 주제에 포섭되지 못하는 오상원의 개별 작품의 특징들은 간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오상원은 『유예』 발표 이후, 1956년 신진 작가 좌담회에서 ‘태도와 수법’에 대해 언급하며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기법적 측면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sup>6)</sup> 또한 『모반(謀反)』(1957)과 관련해 창작에 임하는 태도를 설명하면서 “테마와 인물이 가장 적절하게 투입되

후세대소설연구』, 국학자료원, 2004, 16면에서 재인용.)

3) 김상선, 『신세대작가론』, 일신사, 1964.

4) 오상원의 소설에 관한 연구로는 손광식, 『오상원론』, 『한국전후문학연구』, 성균관대출판부, 1993; 구인환 외, 『한국전후문학연구』, 삼지원, 1995; 임준호, 『오상원 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6; 배경열, 『한국 전후 실존주의 소설 연구』, 태학사, 2001; 유철상, 『한국 전후소설연구』, 월인, 2002; 장양수, 『오상원의 「황선시대」』, 『한국 실존주의소설 연구』, 새미, 2003; 김용희, 『오상원 전후소설의 실존의식』, 『비교문학』 제44권, 한국비교문학회, 2008; 최애순, 『1950년대 「사상계」와 전후 신세대 오상원의 휴머니즘』, 『우리문학연구』 제57권, 우리문학회, 2018을 참조.

5) 유중호, 『도상의 문학-오상원론』, 『현대한국문학전집』 7권, 신구문화사, 1968, 440-441면.

6) 오상원 외, 『신세대를 말하는 신진작가 좌담회』, 『현대문학』, 1956.7, 182-183면.

어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설정하고 스토리를 구상한다”라고 언급했다.<sup>7)</sup> 그렇기에 오상원의 소설 창작 기법들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오상원 소설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장소’ 개념을 중심으로, 장소의 배치로써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기법이 적용된 『황선지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오상원의 소설이 플롯이 아니라 무질서하고 유동적인 내면 의식의 흐름으로 구성되는 서사 탓에 개인이 행동할 구체적 공간을 얻지 못해 추상화되었으며, 배경 묘사에 둔감하여 배경적 의미를 찾기 어렵다고 보는<sup>8)</sup> 시각과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다.

『황선지대』는 1960년 4월 『사상계』에 발표된 소설로, “(오상원의) 작품 경향을 종합적으로 보여준 작품”<sup>9)</sup>, “오상원의 모색 작업의 집약체”<sup>10)</sup>로 평가받았다. 고명철은 이러한 평가가 선행 논자들의 비평적 열망, 즉 『황선지대』의 발표 시기가 4·19 이전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1950년대 전후문학의 역사성을 마감하는 데 소설사적 의의를 부여하려 한 것에 기인한다고 지적한다.<sup>11)</sup> 그의 논의는 미시적 탐구를 병행하지 않고 『황선지대』를 오상원의 전후문학의 맥락에서 파악하려는 시도를 비판하며, ‘황선지대’로 상징되는 서사의 공간성이 작품의 전반적인 아우라를 결정하고 있음을 언급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고명철은 황선지대를 전후 작가의 허무적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적 공간으로 읽어내고 그것을 주요 인물의 욕망의 좌절과 연결시킨다. 『황선지대』에 나타난 절망적인

7) 오상원, 『초조한 마음』, 『한국전후문예작품집』, 신구문화사, 1963, 422면.

8) 송태욱, 『오상원 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32면; 정희모, 『오상원 소설의 새로움과 황선지대』, 『상허학보』 제13권, 상허학회, 2004, 434-438면.

9) 송태욱, 『휴머니즘과 도피의 메커니즘-참전세대의 논리』, 『한국소설문학대계』 36권, 동아출판사, 1995, 573면.

10) 손광식, 앞의 책, 34면.

11) 고명철, 『전후소설에 나타난 전망 부재의 한 양상: 오상원의 『황선지대』論』, 『반교어문연구』 제10권, 반교어문학회, 1999, 324면.

현실과 허무주의에 주목하는 방식은 정희모의 연구에서도 드러나는데, 그는 「황선지대」에 전후 현실의 공허감이 허무주의 및 비관주의와 중첩되어 나타나 있다고 분석한다.<sup>12)</sup> 그러나 「황선지대」의 비극적 결말에만 초점을 맞추어 '전후 현실에서의 전망 부재'를 중심 주제로 읽어내는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작품의 의미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황선지대」의 행동주의적 성격을 분석하며 '정윤(사나이/때장)'이 드러내는 현실과의 대결 의지를 읽어낸 김도희의 연구는 이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할 수 있다.<sup>13)</sup> 본고에서는 여기에서 나아가 장소를 중심으로 전체 서사를 분석하여, 작품에 내재된 시대적 의미를 파악하는 동시에 작중 인물이 허무를 응시하면서도 삶의 방식을 확인하려는 데서 산출되는 존재론적 의미를 포착하고자 했다.

인간은 자신이 사는 곳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서 공간에서 사유하고 행동하며 자신의 존재를 지각한다. 공간은 소설에서도 중요한 토대가 되며, 인물들의 사고와 활동을 규정짓거나 반대로 그것들을 상징적으로 구체화하는 작품의 중핵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그러한 작품을 해석할 경우에는 작품 내 공간들을 구성하는 많은 코드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작가의 서사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장소' 개념에 주목하고자 한다. 공간이 어떤 물질이 존재하거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을 가리키는 추상적이고 동질적인 개념이라면, 장소는 인간의 사고나 경험이 투영되어 의미화된 공간을 가리키는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개념이다.<sup>14)</sup> 그리고 장소성은 인식과 경험을 기반으

12) 정희모, 앞의 논문.

13) 김도희, 「행동에서 찾는 삶의 의미: 오상원 중편 〈황선지대〉」, 『새얼어문논집』 제14권,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새얼어문학회, 2001.

14) 이와 관련해 인간 실존(혹은 현존재)의 구조에서 장소가 담당하는 역할에 주목했던 하이데거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하이데거는 하나의 세계와 연결되고 세계에 관해 생각하며 세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가능성 자체가 장소와 결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즉 장소를 '세계 내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재, 사고, 경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으로 본

로 장소가 획득하는 의미이자, 그 장소의 고유한 특성을 지칭한다. 이러한 장소성은 그 장소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공유하는 집단적 정체성을 포괄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문학 작품에서 공간을 구상하고 배치해 장소화하는 것은 그 공간에 의미와 정체성,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다.<sup>15)</sup>

이상의 관점을 바탕으로, 본고는 『황선지대』의 장소성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전후의 현실과 인간의 존재론적 문제가 작품에 구현된 무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형상화되었는지 확인하려 한다. 소설의 제목이 ‘황선지대’인 점에서도 암시되듯, 『황선지대』에서 묘사되는 장소들은 단지 서사를 보조하는 위성적인 요소가 아니라 텍스트의 의미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장치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2장에서는 ‘기지촌’과 ‘미군 기지’의 관계성을, 3장에서는 ‘기지촌’과 ‘과거 이북’의 관계성을 분석함으로써 전후 사회의 기지촌이 어떠한 의미망 안에서 장소성을 획득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4장에서는 ‘기지촌’과 ‘미군 기지’를 연결하는 ‘땅굴’ 파기에서 나타나는 작중 인물들의 기투(企投) 행위를 분석할 것이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작품을 관통하는 인간의 현실 인식과 존재론적 관점이 장소의 배치를 통해 어떻게 묘사되었는지 파악하려 한다.

것이다. (제프 말파즈, 김지혜 역, 『장소와 경험』, 에코리브르, 2014, 20-21, 47면 참조.)

15) 공간과 장소 개념은 논자에 따라 정의를 달리하나, 본고에서는 장소를 인간 존재가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과 결부시키는 관점을 채용한다. (팀 크레스웰, 심승희 역, 『장소』, 시그마프레스, 2012, 18-19면 참조.) 도린 매시는 인문지리학적 관점에서 장소를 “특정한 시간 속에서 형성된 무수한 사회적 관계들의 특정한 조합”이자 “열려 있고 유동적이고 연결되어 있”는 개념으로 보았다. 이러한 논의로부터 장소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라는 시각을 읽어낼 수 있다. (도린 매시, 정현주 역, 『공간, 장소, 젠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17면 참조.) 단 장소의 강조가 공간 개념을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 2. 전후 공간의 이분화

『황선지대』가 발표되었던 『사상계』는 서북 출신의 신세대 지식인들을 주요 필진으로 하여 지식의 공론장을 형성했다. 오상원은 평안북도 태생의 작가로서, 월남한 신진 작가들과 지적 연대를 이루며 『사상계』에 많은 작품을 발표했다.<sup>16)</sup> 오상원의 관심은 전후의 현실, 특히 전쟁이 남긴 상흔에 있었다. 『황선지대』는 전후에 미군 주둔지 인근에 형성된 한 빈민가를 배경으로 한다. 소설의 서두는 황선지대 앞 철책에 쓰인 “OFF LIMITS YELLOW AREA.”<sup>17)</sup>라는 문구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YELLOW”는 위험을 알리기 위해 황색기가 쓰이는 데서 알 수 있듯 ‘경고’를 의미하며, 한편으로 동아시아인을 비하하는 단어로도 사용된다는 점에서 빈민가가 미국인이 아닌 한국인의 영역임을 짐작케 한다. 이처럼 상징적인 장면을 극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은 연구자들로부터 ‘영화적 장면·기법’이라 언급되기도 했는데,<sup>18)</sup> 마치 영화를 상영하듯 한 공간을 세밀하게 시각화하는 『황선지대』의 서술 방법은 희곡을 집필한 작가의 경력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sup>19)</sup> 이러한 특징은 서사가 진행되며 인물의 동선을 따라 현장

16) 『사상계』에 수록된 오상원의 소설은 『죽음에의 훈련』, 『증인』, 『백지의 기록』, 『내일쯤은』, 『모반』, 『부동기』, 『보수』, 『표정』, 『현실』, 『황선지대』, 『무명기』, 『야반』, 『거리』, 『담배』, 『그 어느 주변』 등 15편으로, 박경수를 제외하면 오상원은 『사상계』에 가장 많은 작품을 실었다. 『사상계』에 수록된 소설 목록을 비롯하여 1950년대 『사상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건우,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2003을 참조.

17) 오상원, 『황선지대』, 『오상원 중단편선: 유예』, 문학과지성사, 2008, 7면. 이하 이 책에서 인용 시 인용 구절 다음의 괄호 내에 인용 면수만 기재한다.

18) 김우중, 『동인문학상 작품론』, 『사상계』, 1960.2, 255면; 조남현, 『현대소설의 해부』, 문예출판사, 1993, 166-199면.

19) 오상원은 『유예』(1955)로 등단하기 전 『녹쓰는 파편』(1953)으로 극협 상연 희곡 모집에 당선되었으며, 이 작품을 비롯해 그가 쓴 『목살된 사람들』, 『지하실』, 『이상』, 『즐거운 봉변』 등의 희곡이 극단에서 공연되었다. 또한 오상원은 『세계전후문제희곡·씨나리오집』(신구문화사, 1962.3.)에 이오네스코의 『의자들』을 번역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력으로부터 오상원이 희곡 분야에도 조예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박신영, 『오상원 희곡 연구 - 현실의식과 극작기

감을 제공하는 공간 묘사가 이어지는 데서도 발견할 수 있다.

『황선지대』의 빈민가는 PX(Post Exchange) 물품을 조금씩 훔쳐내 생계를 유지하는 이른바 “암생이패”나 “협잡패”, 미군에게 몸을 팔아 생활하는 여성 등 미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연명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이른바 ‘기지촌’으로 추정된다. 기지촌을 중심 소재로 하는 전후 시기의 소설은 대부분 여성 또는 아이의 시선이나 발화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자국의 남성성을 미국으로 상징되는 또 다른 남성성과 직접적으로 대립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한 장치다. 일제 강점에 뒤이은 한국전쟁을 거치며 제2차 세계대전 및 냉전 체제에 대한 전반적이고 주체적인 시각이 형성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기지촌의 문제를 매개로 하여 미국 주둔군을 대립자로 이해하고 공론화하려는 문학적 시도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국의 남성성을 내세워 이와 대립되는 미군에 대항적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는 주도권을 빼앗긴 훼손된 남성성을 드러내야 했으며, 북한이 아닌 아군을 적대적 남성성으로 규정할 경우 당대 남한 사회를 지배했던 반공 이데올로기 하에서 정치적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sup>20)</sup> 그렇기에 『황선지대』에서도 정치성을 띠지 않는 소년 ‘철이’가 등장해 현실의 모순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미군 인물은 단 한 번도 실제로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황선지대』의 경우 자국의 훼손된 남성성을 은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노출시켜 미국 주둔군과의 대립 구도를 보여주려는 비판적 의도가 보인다. ‘철이’가 중심 사건의 전개와 거리를 두는 관찰자적 시선을 유지하며 그보다는 실질적으로 사건을 추동하는 ‘정윤’의 역할이 훨씬 두드러지는 점, 그리고 여성 인물들은 부수적으로 등장하며 남성 인물들의 행위를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는 점은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법을 중심으로.』, 『어문논총』 제27권 0호, 한국문학언어학회, 1993 참조.)

20) 기지촌 소설의 남성성과 관련된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는 박훈하, 『기지촌 소설의 계보와 남성성의 확립 과정』, 『한국문학논총』 제19권, 한국문학회, 1996 참조.

오상원의 소설 가운데 남성 주인공이 등장하며 미군 기지 및 기지촌이 배경으로 설정된 작품은 「황선지대」뿐만이 아니다. 「난영(亂影)」(1956)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음에도 미군 기지의 노무자 감독관으로 일해야 했던 ‘미스터 문’이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로, PX 물품을 훔쳐 양공주를 통해 팔던 미군을 고발했다 실직되는 일화가 그려진다. 「보수(報酬)」(1959)의 상황 설정은 「황선지대」와 보다 유사하다. 기지촌에 살며 PX에서 고가의 물건을 훔쳐 생계를 이어가던 비정한 인물인 ‘민규’가 어리숙한 줄만 알았던 ‘윤씨’를 이용하고자 함께 절도 계획을 실행했다가, 자신만 들켜 죽음을 맞는다는 내용이다. 이렇듯 미군의 잦은 등장은 오상원이 학도병으로 참전했을 당시 미군 25사단에 배속되어 미군과 함께 전쟁을 경험한<sup>21)</sup>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이유는 미군 기지와 기지촌이 미국의 물자와 원조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한국 전후 사회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소재였다는 데 있다. 한국전쟁은 절대적인 대미 의존과 미군 주둔의 반영구화를 초래했고, 그 결과 해방 이후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던 기지촌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로부터 제기되는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를 의미하는 신식민주의<sup>22)</sup> 문제, 양공주로 대표되는 여성 상품화 문제, 기지촌의 건설과 유지에 암묵적으로 공모한 한국 정부와 가부장적 남성 주체의 문제 등 사회적 병증을 내포한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기지촌은 사회적 구성물이다. 오상원이 황선지대를 “전쟁과 함께 미군 주둔지 변두리에 더덕더덕 서식된 특수지대”이자 “전쟁의 산물”(7-8)로 명시하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은 기지촌을 우연히 형성된 공간이 아니라 전쟁에서 비롯된 다양한 역학관계 속에서 의도적으

21) 오상원, 『오상원 작품집』, 지식음만드는 지식, 2010, 34면.

22) 구식민주의의 주요한 지배 형태가 피억압 민족에 군사력을 사용하는 직접적 지배 및 수탈이었던 것에 비해, 제국(특히 미국)이 취하는 신식민주의는 형식적 독립국을 승인하는 한편 간접적인 정치적·사회적·군사적·기술적 지배를 유지하며 종래의 식민지 체제를 재편·강화하려 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상구, 「신식민주의의 이데올로기적 虛實」, 『광장』 제106호, 세계평화교육협의회, 1982, 86면 참조.)

로 구성된 비극적 장소로 위치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황선지대』에는 『난영』과 『보수』와는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다. 『황선지대』는 기지촌의 비참한 현실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큰길을 경계 삼아 표지와 철조망으로써 구획된 미군 기지와 기지촌을 강하게 대비시킴으로써, “이쪽(배반당한 특수지대)” 세계에서 “저쪽(질서 정연한 도시)” 세계를 선망하는 인물들의 욕망과 절망을 가시화한다. 『난영』과 『보수』에서 미군 기지는 기지촌과 대비되기보다는 주인공의 불행한 삶이 연장되는 곳으로서 전후 한국 사회라는 무대에 포섭된다. 반면 『황선지대』의 미군 기지와 기지촌은 “전쟁이 던지고 가는, 꼭 같은 불안과 상처” 속에서 호흡을 나누면서도 “결코 일치할 수 없는 체온과 생리들”(8) 지닌 곳으로 제시되며, 대립적인 관계망 안에 배치되어 장소화되고 있다. 두 장소는 물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구조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으나, 경고문의 존재에서 알 수 있듯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철이’가 “저쪽”을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까마득히 동떨어진 곳에 있는 것만 같이”(132) 느끼는 데서 암시되듯 큰 간극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더욱 대조된다.

철조망은 이중 삼중으로 쳐 있고, 그 사이는 지그재그 하게 마구 가시 줄로 얽혀 있었다. 그는 술기로 붉게 떠오르는 눈을 휩쓰고 그 철조망 저쪽을 노리듯 바라보고 있었다. 그쪽은 퀘셋마다 전등불 빛이 휘황찬란하였다. 그러나 그가 등진 곳은 마치 무덤 속처럼 칙올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10)

이야기는 주요 인물 가운데 ‘곰새끼’가 가장 먼저 등장해,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미군 부대 통역자를 찾아 기지로 가는 것으로 시작된다. 거친 욕설을 내뱉던 그는 철조망에 당도하지만 고축 경계등 쪽으로 슬그머니 시선을 돌릴 뿐 철조망을 넘지 못하고 휘황찬란한 불빛을

뒤로한 채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이렇듯 황선지대와 미군 기지를 대비하는 서술 방식은 이후로도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며, 그러한 장면은 항상 “이쪽”에서 이상(理想)화된 “저쪽”을 바라보는 인물의 시선이나 대사와 결합되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쪽”과 “저쪽”의 견고한 구획은 “저쪽”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무의미한데, 그것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저쪽”에서 “이쪽”으로 진입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황선지대 앞의 철책에는 출입을 금하는 표지판이 붙어 있으며 작중 인물들이 모이는 바 ‘블랙 캣’ 역시 미군 출입 금지 구역이지만,<sup>23)</sup> 그럼에도 미군들은 “그런 곳일수록 오래 있기 마련”(9)이다. ‘블랙 캣’의 손님들이 ‘곰새끼’의 아내와 만나는 ‘노래기’에 대해 잘 아는 것이나 (11), ‘짜리’가 양공주 ‘영미’에게 “네 단골 서방인 코 큰 상사”를 운운하는 장면을 보면(39-45) 미군이 황선지대를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 설정은 전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배적 위치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군 기지 주변에 형성된 황선지대는 미국 군인이 먹다 버린 음식 찌꺼기일지라도 “살기 위해선” 무엇이든 생명의 발판으로 삼아 번식하는 ‘곰팡이’(7)의 이미지로 은유된다. 이러한 표현은 기지촌의 기생적 위치뿐만 아니라, 미국의 원조와 미군 기지에서 흘러나오는 외화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당대 사회의 외세 의존적 구조를 보여준다. 그러나 식민지 시기 폭압적인 제국 권력을 행사했던

23) 미군정기부터 미 국방부는 성매매를 최대한 억제하려는 공식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외국에 주둔한 병사들의 성매매는 암묵적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건과 위생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1949년 미군이 철수하자 기지촌도 함께 사라지는 듯했으나, 한국전쟁의 발발로 미군 주둔이 장기화되면서 기지촌 역시 확장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미군 상대 성매매 여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성매매 업소를 설치하거나 미군 기지 주변의 댄스홀과 바 등의 통제권을 미 헌병대에 부여했다. 그러한 정책을 자국 병사들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여긴 미군 당국은 1957년 미군의 외출 및 외박을 허용했고, 이 조치는 전국 각 지역의 기지촌이 급격히 변창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보경, 『6·25전쟁 이후 미 제8군사령부 설치와 용산의 변화』, 『6·25전쟁과 1950년대 서울의 사회변동』, 서울역사편찬원, 2018, 355-357면 참조.)

일본에 비해 미국은 남한의 우방이라는 위치에서 막강한 부와 군사력을 토대로 전후의 세계 질서에 관여했고, 남한 사회에서는 대중적 차원에서 경계의 대상만이 아니라 아시아적 후진성과 대비되는 매혹적인 기표가 되었다. 특히 한국 국가의 기반이 되었던 미군 관련 경제의 효용성은 미국이 해방기부터 수행해온 친미화 전략과, 전후에 한국 사회에서 추구된 근대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이상적 표상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인식은 『황선지대』의 작중 인물들에게도 내면화되어 있다. ‘정윤’과 ‘고병삼(청년/두더지)’, ‘곰새끼’는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줄 값비싼 물자로 풍족한 곳으로서 미군 기지를 인식한다. ‘철이’ 역시 주정과 싸움으로 가득하고(65) 살아가기 위한 아귀다툼의 현장처럼 보이는(141) 황선지대와 달리, 미군 기지는 가난도 주정도 싸움도 없는 이상화된 장소라 여긴다.

반면 “이쪽” 세계인 황선지대는 오물과 분노로 더러워지고, 쓰러질 듯한 판잣집들이 늘어선 좁은 골목길의 풍경으로 묘사된다. ‘철이’는 판잣집이 늘어선 황선지대와 “저 멀리 바라보이는 큰길 건너 조용히 누워 있는 거리”의 대조적인 풍경을 보며 자신이 길거리에서 걷어찼던 돌맹이의 하잘것없음을 연상한다. 기동서방인 ‘짜리’에게 지속적으로 구타당하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누나 ‘영미’의 존재를 떠올리면서 돌맹이를 걷어차는 ‘철이’의 행위는 “세상이나 사람이 하나같이 되어먹지 않은 것” 같다는 원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원망은 “허무”의 감정으로 귀착된다.(140-141) 이러한 장면은 전쟁으로 황폐화된 풍경 속에서 정상으로 간주되던 삶의 방식과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해야 했던 전후의 시대적 분위기를 환기하는데, 이는 선입견이 배제된 순수한 소년 ‘철이’의 시선을 통해 그려짐으로써 한층 진실성을 획득한다.

황선지대의 구성원들은 피폐한 현실 속에서 삶의 불구성을 적나라하게 체험한다. 이러한 존재론적 불구의식은 훼손되거나 유린되는 신체로서 표상된다. 이 신체는 곧 이들이 살고 있는 병리적 장소의 표상이다. ‘정윤’처럼 참전 선임하사 출신임에도 “사회의 냉대와 생활의 고통”(107)을 겪어

야 했던 ‘고병삼’은 ‘정운’과의 첫 만남에서 사나운 짐승에게 물어뜯긴 듯한 팔뚝의 징그러운 흉터를 내보인다. 그것은 전우 열세 명을 잃은 후 무의미한 훈장과 더불어 얻은 상흔이자, 전쟁이 남긴 지울 수 없는 표식이다. ‘짜리’는 영미가 미군 병사에게 얻었던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미군 기지의 물품을 훔치려다 들키는 바람에 다쳐 다리를 절게 된다.<sup>24)</sup> ‘짜리’의 호전적 성격은 장애를 얻은 후로 더욱 뒤틀려 ‘영미’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싸움을 일삼으며 상해를 입힌다. 양공주인 ‘영미’나 매음굴의 매춘부 소녀의 경우는 기지촌 소설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여성 유형으로서, 전쟁과 해계모니적 국가 관계의 일방적 희생양으로 등장한다. 이들은 거래의 대상으로서 주체성을 상실하고 끊임없이 유린된다. 이때 여성의 몸은 민족의 은유로 나타나며, 타국 남성의 성적 침해나 유혹에 약한 존재로 그려진다. 여성 인물들의 취약성은 일차적으로 전쟁이 우리 민족에 가한 폭력을 보여주지만, 한편으로 일제강점기와 해방기를 지나 전후에 이르기까지 국가에 대한 권리를 온전히 쥐지 못한 가부장적 남성 주체의 상실감을 표현하기도 한다. 기지촌의 형성은 해방을 자주적 민족 국가의 건설로 이어가지 못하고 또 다른 외세의 영향권에 놓이게 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서사의 후반부는 남성 인물들이 기지촌에서 사랑하는 여성 인물을 구원하여 자신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일상을 재건하려 하는 시도로 이루어지게 된다. 황선지대, 나아가 전후 사회를 구성하는 육체들은 민족과 젠더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황선지대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삶의 조건과 형태에는 전후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들의 서사는 장소와의 관계 위에서 성립된다.

24) 오상원은 「훈장」(1964)에 ‘짜리’라는 별칭을 지닌 인물을 다시 등장시키는데, 이 작품에서 그가 무릎에 지니고 있는 끔찍한 흉터는 「황선지대」의 ‘고병삼’의 경우처럼 참전으로 인한 것이다. ‘짜리’는 자신을 과시해야 할 때마다 상대에게 훈장인 양 흉터를 보여준다. 이 역시 전쟁의 폭력적인 흔적이다.

황색 선으로 구획된 황선지대라는 공간은 단지 역사의 사실적 반영으로서 미군 기지 곁에 재현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종속된 남한의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치로서 의미화됨으로써 장소성을 획득한다. 황폐화된 전후 사회의 면면이 포착되는 곳은 그밖에도 무수할 터이나, 냉전으로 형성된 미국 중심의 신식민주의 하에서 강대국과 대조적인 한국 현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소는 전쟁의 부산물로서 미군에 기생해 존재했던 기지촌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1960년대에 한미행정협정이 체결되고 월남전 파병이 진행되는 가운데 『사상계』와 같은 주요 매체를 통해 신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확산된 것을 생각하면,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의 담지가 1960년의 문인들에게 불가능했으리라 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황선지대」는 한국의 전후 공간을 미군 기지와 기지촌이라는 두 축으로 이분화하는 대립적 장소의 배치를 통해, 한국과 당대에 이상 국가처럼 인식되었던 미국 간의 관계의 어두운 이면을 포착하고 있다. 「황선지대」에서 표면적으로 이상적인 장소처럼 묘사되는 미군 기지는 실상 황선지대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지촌 인물들의 예측과 비참한 삶을 지속시킨다는 점에서 유토피아를 ‘가장’하고 있는 것이다.

### 3. 일상 복귀의 불가능성과 신식민주의 비판

황선지대의 비극성은 미군 기지와의 대비뿐만 아니라 ‘정윤’의 이복에서의 기억을 통해서도 강조된다. 장소를 지도 위의 점이 아닌 공간과 시간의 통합물로<sup>25)</sup> 보고 황선지대에서의 서사를 공간-시간적 사건으로 이해할 때, 황선지대는 ‘정윤’과 ‘영미’가 한국전쟁 이전의 일상적인 삶을 영

25) 도린 매시, 박경환·이영민·이용균 역, 『공간을 위하여』, 심산, 2016, 254면.

위했던 과거 이북의 고향이라는 상실한 장소와도 대립선상에 놓인다. 두 인물의 인연은 한만(韓滿) 국경선 근처의 소도시에서 시작되었다. 현 시점으로부터 십여 년 전,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은 공산주의자들을 배후에 두고 민족주의 세력을 제거해 공산 정권을 수립하려 하고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정운'은 교내 자치회와 시내 각급 학교를 망라한 학생 총운영 위원회를 조직하여 시내 전 학생 대표로서 활약했는데, 당시 '영미' 또한 학교 자치회에서 활동하며 '정운'과 학생운동을 함께했다. 학생운동은 실패로 끝나 결과적으로 '정운'이 월남하는 계기가 되지만, 그곳은 전쟁의 참상을 겪기 전, 혼란스러운 정국일지라도 그가 최소한 현실의 모순과 대결하며 주체적으로 생의 의미를 추구할 수 있었던 장소였다. 월남하여 신탁 통치 반대 데모를 하다 더위와 허기에 쓰러진 '정운'과 동료들은 낮모를 부인이 주고 간 빵으로 달려들지만, 그만한 기쁨기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탓에 모두 토하며 눈물을 흘린다. 그 후 사람들은 "실망과 저주 속에 자신을 때려치우고"(74) 하나들 떠나간다. 이러한 장면은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현사실적 규정성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인간 실존의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구심점을 상실한 전후의 상황 속에서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을 영원한 진리에 의해 이해할 수 없게 되고 그저 '존재한다'는 현사실에 던져진다. 이렇듯 『황선지대』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보다는 살아있다는 현실 자체가 문제가 되며, 극한 상황에서 삶의 의미를 재고찰해야 하는 실존주의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전쟁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절망의 감각은 이제 돌아갈 고향이 없다는 '곰새끼'의 대사나(31), 미군 부대의 물품을 훔쳐 생계를 이어가는 처지가 된 '정운'이 전쟁 중 군인들에게 강간당한 후 기지촌으로 흘러들어와 양공주가 된 '영미'를 만나 "왜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 하였을까"(48)라고 되뇌는 것 등에서 확인된다. 이들에게 이북의 고향은 분단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닿을 수 없는 곳일 뿐 아니라, 삶에 대한 전망이 존재했던 과거의 기억 속 장소다. 그러한 전망의 존재는 '과거 이북'의 장소성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이며, '과거 이복의 상실'은 곧 전망의 상실과 연결된다.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초감각적 본질을 추구하는 자기실현이 불가능해지고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한 현실과 실존 자체가 중시되는 극한 상황 속에서, 민족과 이데올로기의 문제는 일종의 사치품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한다.

한편 전망을 상실하는 계기는 월남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이복에서의 경험에도 이미 그 가능성이 배태되어 있다. '정운'의 이복에서의 기억에서, 월남 이후 그에게 고된 삶이 이어지리라는 것을 예견케 하는 요소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소련 군정은 이복 지역을 점령해 각지에 자생적으로 결성된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소련에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하고자 했으며, '정운'과 '영미'가 참여한 학생운동은 그것에 반대하는 반공을 기조로 삼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운'의 회상에서 중점적으로 묘사되는 것은 학생운동보다도 소련군에게 수모를 당하는 일본인들의 참상이다. 소련 병사들은 일본인이 밀집해 살고 있던 '본정'에서 가옥을 부수고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폭력과 강간을 일삼는 무자비한 존재로 등장한다. 반면 일본인들은 전혀 저항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가련"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그려진다.(51-52) 1946년 미소공동위원회의 소련 대표단에 하달된 훈령<sup>26)</sup>을 살펴보면 해방기 소련이 임시정부 조직 과정에 친일협력자들을 배제하고 일제 잔재를 청산할 것을 매우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친일부역자나 일제 관료에 대한 정치적 단죄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일제 시기의 법령과 재판 기관이 모두 폐지되고 명확한 사법 치안 체제가 부재한 가운데 일본인을 상대로 한 폭행과 약탈, 협박 등이 잇따랐던 것이다.<sup>27)</sup>

26) 전현수, 『해방 직후 북한사 연구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소장 북한관계자료의 검토), 『역사와 현실』 제10권, 한국역사연구회, 1993, 299면 참조.

27) 소련군 중좌 페드로프가 1945년 12월 29일에 작성한 보고서에는 "우리 군인(소련군)의 비도덕적인 작태는 실로 끔찍한 수준이다. 사병 장교 할 것 없이 매일 곳곳에서 약탈과 폭력을 일삼고 비행을 자행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부녀자를 겁탈하는 범죄도 만연해 있다"라 기술되어 있어 해방기 북한에

『황선지대』에 ‘정운’과 ‘영미’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본인들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묘사된 까닭은 일차적으로 반공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이승만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강력한 반공 국가를 구축한 이래, 반공 이데올로기는 남한 사회를 지배하는 강력한 헤게모니적 도구로 작용했다. 특히 오상원을 비롯한 월남 지식인들에게 반공의 표방은 남한에서 자신의 이념과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했다. 그러나 『황선지대』의 비판적 시선은 소련군에게만 머무르지 않는다. 한반도에서의 소련군의 가해는 냉전과 신식민주의 체제 하에서 가능했으며, 남한 사회 역시 그러한 비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다.

그때 그는 그녀(일인 소녀)를 가엾게 생각하며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여 앞으로도 결코 우리에게 저런 일이 없기를 마음속 깊이 다시금 다시금 빌었던 것이었다. 비단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어느 민족, 어느 여자에게도…… (중략) 그때의 일이 이처럼 새롭건만 그 후 얼마 안 가서 6·25 사변이 터지고 그녀(영미)는 꼭 그와 같이 당하고야 말았던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는 다시 눈을 내리감고 걸기 시작하였다. (52-53)

불과 열여섯 살가량의 소녀가 소련 병사들에게 강간당해 쓰러져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정운’은 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낀다. 단지 반공을 표방하기 위해서였다면 오히려 ‘정운’의 활약을 강조하고 우익적 민족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학생운동의 전개를 구체화하는 편이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굳이 ‘정운’이 구식민자인 일본인에게 감정을 이입하고 일본의 피해를 부각하는 듯한 장면을 삽입해, 전쟁 책임론을 회피하는 일본의 자기 충족적 전후 담론마저 연상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한다. 이

진주한 소련군의 행태를 짐작할 수 있다. (하태원, 『1945년 北 진주 소련의 붉은 군대는 해방군 아닌 약탈군이었다』, 『동아일보』, 2010.03.10.)

장면에서 궁극적인 비판의 대상은 국가 윤리라는 미명하에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일체의 폭력으로 보아야 한다. 소녀가 소련군에게 당한 폭행을 후일에 ‘영미’가 그대로 겪게 되는 것은 북한에서의 비극적 사건이 남한에서도 재현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형식적으로 독립을 허용할 뿐 다방면에서 사실상의 간접 지배를 유지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에 따라, 남한에서 북한에서의 소련과 같은 지배적 위치를 점했던 것은 미국이었다. 월남한 후 ‘정운’이 목도한 남한의 정치 정세는 그에게 실망만을 안겨준다. “항일 투쟁을 통하여 누구나가 우리러보았던 민족의 지도자들”은 자주 국가의 건설을 도모하기보다 “집권을 위한 정치적 암투와 배반”, “감정적 선동과 테러”를 일삼고 있었고, 북한과 중국, 일본 등지에서 유입된 수많은 피난민들은 미군용 천막 속에 집단적으로 수용되어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54-55) 즉 열강의 각축과 지배욕 앞에서 남북한은 서로 상응하는 모습으로 그려지며, 『황선지대』에서 소련은 미국과, ‘본정’은 황선지대와 대등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신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적 묘사는 우방국으로서의 미국의 견고한 이상성에 균열을 일으킨다.

『황선지대』가 이렇듯 교묘한 비판 방식을 취하는 것은 앞서 미군 인물을 직접적으로 등장시키지 않는 까닭을 설명한 바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상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던 남한 사회에서 공고화된 반공 이데올로기는 장준하를 위시하여 친미적 성향<sup>28)</sup>을 드러낸 『사상계』 중심의 지식인 집단에도 내면화되어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오상원은 자기 검열을 수행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기지춘을 배경으로 한 그의

28) 『사상계』의 친미·반공적 성격은 『사상계』의 전신인 『사상』이 문교부 산하 국민사상연구원의 기관지 형식으로 발간된 잡지로서 미공보원의 지원을 받았다는 점, 발행인 장준하가 광복군으로서 OSS(미국 전략첩보국)에서 훈련했다는 점, 대다수 필진 및 편집진이 서북 출신의 월남 지식인으로서 이념적으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장준하, 『장준하문집 3: 사상계지 수난사』, 10주기추모문집간행위원회 편, 사상, 1985 참조.)

소설들에서 묘사되었듯 미군 당국과 남한 정부의 묵인 하에 미군은 초법적인 힘을 지니고 살인과 성매매를 자행했으며, 전후 남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희망적인 구체적 전망을 시혜국을 자처하는 강대국으로부터 찾을 수 없었다. 『난영』의 ‘미스터 문’이 미군 기지에서 노무자 감독관으로 일하면서도 자신을 타자이자 굴욕적인 노동자로 인식하는 것이나, 『보수』의 ‘민규’가 미군 기지에 숨어들었다가 보조병들에게 들켜 죽음을 맞는 데서도 알 수 있듯 오상원에게 미국 중심 체제로의 편입은 남한의 종속과 파국을 불러오는 일이었다. 그렇기에 『황선지대』의 작중 인물들이 결국 떠나고자 하는 이상적인 장소는 작은 시골 마을이라는 막연한 유토피아로만 제시될 뿐이다. 단 『황선지대』는 전후의 절망적 현실을 형상화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허무”를 마주하기 위한 존재론적 탐색을 시도하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 4. 피투적 기투와 존재론적 탐색

『황선지대』의 제1화는 ‘정윤’, ‘고병삼’, ‘곰새끼’가 바 ‘블랙 캣’에 모여 PX 물품을 훔쳐오기로 결의하기까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지며, 제2화에는 그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과정이 그려진다. ‘정윤’과 동료들은 방향기를 이용해 ‘정윤’의 집에서부터 미군 기지 내의 PX 창고에 이르는 땅굴을 파고 고가의 물품들을 훔쳐내기로 한다. 그것을 팔아 평생 먹고살 밑천을 마련해 새로운 삶을 도모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미군의 원조 경제 체제와 기지촌에서의 삶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어리석은 일확천금의 꿈으로 볼 수도 있으며, 단지 작중 인물들의 현실 세계와의 대결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데 머물렀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과거 이북에서는 학생 총운영위원회 대표로서 학생 운동을 주도하기까지 했던 ‘정윤’의 영웅적 면모는 돈이 생기면 친구나 여

자에게 모두 주어 기지촌을 탈출하도록 도와주는 휴머니스트로서의 행위로만 나타날 뿐, 현 상황의 근원적 모순을 비판하거나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도모하기 위한 건설적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이 같은 결점은 이해나 지식의 가능성 자체가 장소에 ‘놓여 있음’에 있다고<sup>29)</sup> 할 때, 기지촌에서의 일상에 잠식당한 인물들의 사고의 한계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소설 초반에 ‘고병삼은 ‘정운’에게 “암생이 패”와 “협잡패”만이 가득한 황선지대에 처음 정착할 때 느꼈던 후회와 거부감이 점차 사라지고 이제 웬지 이곳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정드는 곳이 된 듯하다고 털어놓는다. 이는 황선지대라는 특정 장소에 대한 의식적인 애착과 자기 동일화를 바탕으로 장소감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지는 대화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이들이 전쟁이라는 폭압적 경험을 한 후 목도한 것은 사상운동이나 참전의 경험의 가치가 무용해지는 비참하고 무력한 현실이었다. “적의 고지 같은 목표”조차도 없이 굶주림에 시달리며 삶의 향방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을 거쳐 기지촌으로 흘러들어온 이들에게는 합리적인 관념적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삶의 부조리를 받아들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최대의 과제가 되었다.

작중 인물들이 절도를 계획하는 장면은 인간의 삶의 방식에 대한 관념적 형상화가 아니라 당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반영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시대적 의미를 얻는다. ‘PX 경제’라는 표현이 생길 만큼 당시 미군 기지에서 흘러나온 미제 물품은 중요했고, 『황선지대』에 묘사된 절도 행위는 실제로도 만연해 있었다. 국내 암시장은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이, 해방기에는 미군정이 물자의 배급과 가격을 통제하고자 시행한 통제경제 정책의 영향으로 존재해왔다. 군대에서 경영하는 PX의 물품이 시중에 본격적으로 불법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로, 미군 기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PX 물품을 매매하는 크고 작은 규모의 암시장이 형성되었다.

29) 제프 말파스, 앞의 책, 245면.

오상원이 「난영」으로 소설화한 바 있듯, 미군이 자신과 동거하거나 친분이 있는 기지촌 여성을 중간자로 삼아 PX 물품을 반출해 암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많았다.<sup>30)</sup> 그러나 암시장에서의 소비가 확대되면서 대량의 PX 물품을 반출하기 위한 경로는 다양해져갔는데, 물품 수송 과정에 대량으로 유출되도록 하거나 각 부대의 PX 관계자와 결탁해 연락망 및 동원 체계를 확립하여 빼내오는 방법이 있었다. 그리고 「황선지대」의 ‘정윤’ 일행이 시도한 것과 같이 개개인이 부대에서 숨겨 나오는 방법도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암시장에서 유통된 PX 물품은 다종다양했으며 그중 ‘고병삼’과 ‘곰새끼’가 PX 창고에 있으리라 예상했던 반지, 목걸이, 시계 등의 귀금속 및 장신구도 주종을 이루었다. 이러한 물품 거래는 전후 인플레이션을 다소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으나 산업생태계를 교란시켜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이에 1958년 한미 합동경제위원회가 산하에 세관감시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PX 물품의 불법적인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고자 했으나, 암시장에서의 PX 물품 거래는 1960년대에 들어서도 근절되지 않았다.<sup>31)</sup>

「황선지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정윤’ 일행의 그러한 절도 시도에서 나타나는 ‘땅굴’이라는 장소의 생성이다. 이때 땅굴은 음습하며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항상 죽음의 위험이 따르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인물들이 놓인 전형적인 ‘한계 상황’<sup>32)</sup>의 형상화로 이해할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굴을 파는 목적이다. 오상원은 등단작 「유예」에서부터, 인간은 ‘세계 내 존재’로서 피투(被投)적 상황에 놓여있으나 그럼으로써 스스로 자기 존재를 형성해 나가는 ‘기투’를 감행한다는<sup>33)</sup>

30) 서울역사박물관, 『이태원: 공간과 삶』, 2010, 52-58면 참조.

31) 전후 PX 물품과 암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내용은 오보경, 앞의 책, 359-363면을 참조.

32) ‘한계 상황(Grenzsituation)’이란 “갈등과 고통 없이 살 수 없다는 것”, “피할 수 없는 책임을 내 어깨 위에 걸머지고 있다는 것”, “죽어야 한다는 것” 등 유한한 현존제가 변경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험을 가리키는 야스퍼스의 용어다. (프란츠 짐머만, 이기상 역, 『실존철학』, 서광사, 1987, 110-111면 참조.)

입장을 유지한다. 요컨대 인간은 본질적 이유 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 즉 피투된 존재이기에,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으로 자신을 던짐으로써 자기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이렇듯 인간은 의식적인 결심으로써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주체적 존재라는 견해는 사르트르가 실존주의의 제1 원칙으로 삼은 것이었다. 오상원은 불문학을 전공하면서 사르트르나 앙드레 말로, 카뮈의 작품을 인상적으로 접했으며 그러한 작품들의 실존주의 사상이 자신의 창작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힌 바 있다.<sup>34)</sup> 그러나 그의 실존주의적 경향은 단지 개인적인 학문적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한국 전후를 풍미했던 실존주의의 유행에서 자연스럽게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본질이 아닌 실존을 인간 현존재의 이행 방식으로 상정하는 실존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과 근대화 과정으로 인간 개인의 존엄성을 비롯해 당연시되어온 선형적 가치들이 붕괴됨에 따라, 사르트르의 철학을 중심으로 서구에서 성행했다. 하이데거와 사르트르, 야스퍼스, 카뮈 등의 사상이 소개되면서<sup>35)</sup> 국내에서도 실존주의는 전후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되며 중심 사조로 자리 잡았다. 문학계에서 실존주의는 그 철학적 배경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되기보다는 문학 작품을 통한 감상적 차원에서 주로 수용되었다. “문학이 마치 실존주의의 해설판처럼 되었다”라는<sup>36)</sup> 최일수의 언급에서 드러나듯, 실존주의는 한국전쟁이라는 시대적 특수성을 기반으로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한국 전통 문학보다는 서구 전후문학에서 문학적 전망을 찾고자 했던 전후 신진 작가들에게 지대한

33) 사르트르에 따르면 실존하는 인간은 미래를 향해 스스로를 던지고, 그렇게 미래 속에 스스로를 ‘기투(projeter)’하는 일을 의식하는 존재다. 즉 인간은 ‘주체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기투’인 것이다. (장 폴 사르트르, 박정태 역,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이학사, 2008, 33-34면 참조.)

34) 오상원, 『초조한 마음』, 421면; 『實存을 들먹이며』, 『韓國現代文學全集』 33권, 삼성출판사, 1981, 150면.

35) 전후 실존주의의 수용에 기여한 국내 주요 연구로는 김준섭, 『실존철학』, 정음사, 1958; 조가경, 『실존철학』, 박영사, 1961 등이 있다.

36) 최일수, 『우리 문학의 현대적 방향』, 『자유문학』, 1956.12.

영향을 미쳤다. 오상원 역시 “당시 전쟁 중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실존주의는 당시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도 남았다”라고 대학 시절을 회고했다.<sup>37)</sup> 『유예』에서 오상원의 실존주의적 경향은 인민군에게 포로로 잡힌 청년이 “한 개 기계나, 도구”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인 인간으로서”<sup>38)</sup> 존엄을 회복하고 죽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는 대사나, 그 장면을 바라보는 주인공의 내면 심리로 파악된다. “누구에게나 저마다 끝장은 이미 나 있는 거야.”, “죽 끝장이 난 자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지.”(32)라는 ‘정윤’의 대사 역시, 인간은 부조리한 세계에 이미 내던져진 존재로서 스스로의 결단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관점의 표명이다. 그러나 『황선지대』의 인물들이 한계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은 『유예』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sup>39)</sup> 가 닿을 수 없는 장소로 인식했던 “저쪽”을 “이쪽”과 연결 짓는 땅굴을 파고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기지춘을 떠나 자신만의 이상적인 장소로 탈주하려는 ‘고병삼’과 ‘곰새끼’의 행위는 이분적으로 대립되어 있던 장소 구도에 균열을 일으킨다.

큰길 건너 저쪽, 그쪽이 자꾸 눈앞에서 아물거렸다. 거기에는 자기가 찾고 있는 모든 것이 따뜻하게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러

37) 오상원, 『實存을 들먹이며』, 150면.

38) 오상원, 『유예』, 『오상원 중단편선: 유예』, 166면.

39) 이러한 특징은 오상원이 “마음속에 힌트를 얻”었다고 표현한 앙드레 말로의 『정복자(Les Conquistadors)』(1928)와 『인간의 조건(La Condition Humaine)』(1933)이 정부를 상대로 한 혁명에 뛰어들어 죽음의 위협과 마주하는 인물들을 등장시켜 사유보다 행동을 강조한 것을 상기시킨다. (오상원, 『초조한 마음』, 421면 참조.) 말로는 ‘행동’이 허무에 대한 고발이라면, 작중인물의 혁명 참여로 표현되는 ‘함께하는 행동’은 고독에 대한 고발이며, 그러한 동지에서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초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오세정, 『앙드레 말로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실존의식과 존재의미』, 『비교문화연구』 제47권,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7, 205면.) 실제로 오상원은 『황선지대』를 발표한 해에 논문 ‘앙드레 말로와 행동주의 문학’(『문예』, 1960.6.)을 게재하기도 했다.

나 갈 수 없는 그곳…… 소년은 한없이 한숨을 죽이며 걸음을 멈추었다. (중략) “이 곰 아저씨는 말야, 인제 멀리로 가는 기야. 이 더러운 곳에 끝장을 내고 모든 것 다 훨훨 털어버리고 떠나는 기야.” “어디로요?” “멀리.” “멀리요?” 소년의 눈동자는 갑자기 반짝 빛났다. 소년은 마음속으로 ‘멀리……’ 하고 다시 한 번 중얼거려보았다. (중략) 청년은 잠시 소년을 지켜다. 그는 이 소년에게서 비로소 강한 의미를 찾았다. 그것은 막연할지도 몰랐다. 그러나 소녀와 떠나기로 그는 마음속 깊이 결심하였다. 우선 떠나자. 그 다음의 문제는 또 그 다음의 문제다. 어쩌면 그것이 인간이 사는 태도일지도 몰랐다. (103-109)

땅굴을 파서 PX 물품을 훔쳐내는 행위는 ‘곰새끼’에게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어떤 기대와 의미를 걸고 나”서(90) 일, 즉 자신이 원하는 존재가 되는 일이다. 그러한 바람은 집을 사고 가게를 벌여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작은 시골 마을, 즉 이상적인 미래의 장소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산이 있고 나무가 있고 냇물이 맑게 흐르고 그 속에선 물고기가 놀”고 있는 그곳은 기지촌이라는 “더러운 곳”에서 “누구나가 곰새끼, 곰새끼 하고 부르던 더러운 이름도 저절로 없어지”고, “쌘패 노릇도 술주정뱅이 노릇도 끝장이 나”며(105-106) 새로운 삶이 가능해지는 장소다. 그러한 ‘곰새끼’의 이야기를 들으며, 황선지대에서 안주하는 생활을 이어온 ‘고병삼’은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매춘부 소녀와 “조용한 시골이나 조고만 도시에 가서 가정을 꾸미고 조고만 자기 생활 속에 묻혀 살아가는”(90-91) 것을 꿈꾸게 된다. 한편 ‘정윤’에게 그러한 “기대와 의미”란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는 그가 사랑하는 ‘영미’와 그녀의 동생 ‘철이’와 결부되어 있다. 실존의 기본 단위는 개인이지만, 인간은 공동세계 내에서 타인과 더불어 있으며 타인을 자신의 실존의 조건으로 발견하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실존이기도 하다. ‘정윤’의 목표는 ‘영미’와 ‘철이’를 기지촌에서 탈출시켜 더 나

은 곳으로 보내거나, 남매를 괴롭히는 ‘짜리’를 다른 곳으로 떠나보내서 이곳을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몰래 혼자 가보곤 했던 “큰길”을 누나와 함께 걸어보고 싶었던 ‘철이’의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다. 이처럼 「황선지대」에서 “인간이 사는 태도”나 “변함없는 하나의 인간의 자세”(118)란 현실의 문제와 맞닥뜨리면서도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 자기 존재를 구성해나가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때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과제로서 인식하며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이행으로서의 실존’<sup>40)</sup>이며, 그러한 이행 속에서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관계를 맺는다. 「황선지대」에서 인물들의 삶에 대한 의지는 이상적 장소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드러난다. 장소는 실존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세계의 구체적 형상인 것이다. 다만 그러한 의지는 남성 인물들에게서만 발견된다. 그들의 의지는, 자신이 거주하는 한 장소에서만 등장하며 그곳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욕도 희망도 없고 다만 자신을 사랑하는 남성 인물에 의해서만 구원의 가능성이 탐색되는 ‘영미’나 매춘부 소녀와 같은 여성 인물들에 의해 역설적으로 부각된다. 이는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국의 남성성을 내세워 미국 주둔군과의 대립 구도를 보여주고자 했던 작가의 방식에 기인한다.

땅굴은 ‘정윤’을 비롯한 인물들이 우연히 또는 타의로 내몰린 곳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써 만들어낸 장소라는 점에서 기지촌과 구별된다. 우리가 하나의 장소를 이해하는 것은 그 안에서 가능성들을 확립하는 개인적인 서사들을 통해서라 할 때, 땅굴은 궁극적으로 ‘정윤’ 이행에 의해 추동되는 중심 사건에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곳은 분계선인 ‘황색 선’과 철조망을 넘어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를 연결시키는 통로다. 그리고 일차적인 목표 지점인 PX 물품 창고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미래로의 가능성으로 향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40) 프란츠 짐머만, 앞의 책, 42-44면 참조.

그러나 그러한 기투는 언제나 피투성을 전제하는 바, 그것을 둘러싼 조건과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결말에 이르러 PX 물품 창고의 밑바닥을 뚫고 올라온 ‘정윤’ 일행을 기다리는 것은 텅 빈 공간에서 감지되는 “공허”뿐이다. 이미 수십 대의 수송 트럭들이 창고에서 물건을 모두 실어낸 후였던 것이다. 결국 ‘정윤’의 절도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땅굴을 파며 “적의 고지를 향하여 포복을 감행해 들어가고 있는 것만 같은 환각”(144)에 계속 사로잡혔던 ‘고병삼’이 결국 ‘텅 빈 창고’라는 장소에 다다르게 되는 것에서는 한반도를 이념과 헤게모니를 위한 각축장으로 삼았던 전쟁이 실질적으로 절망과 허무만을 초래했다고 보는 작가의 반전주의적 시각을 읽어낼 수 있다. 인물들이 일상의 질서를 회복하고 재기하는데 실패하는 결말을 제시함으로써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전쟁의 영향력이 전후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전후의 현실에서 감각되는 공허로부터 허무주의만이 남는 것은 아니다. 전후 사회가 개인의 삶에 불가항력적인 힘을 가하는 디스토피아 일지라도 ‘철이’가 계속해서 제기하는 존재론적 물음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철이’는 “왜 사람들은 이같이 몸서리가 치도록 싸워야 하는 것일까.”(102), “이래야만 사람은 사는 것일까.”(141), “어쩌면 사람은 이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일까. 이래야만 사람은 살 수 있는 것일까. 어쩌면 사람은 이러면서도 살아야 하는 것일까.”(153)라고 자문한다. 이러한 독백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삶을 이어가며 존재에 대한 물음의 단초자인 현존재가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난제이며, 전후 현실에서 전망을 상실한 채 삶을 회의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느꼈을 감정을 대변하는 것이자, 작가가 『황선시대』를 통해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이다. 실존적 기투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거나 존재에 대한 답을 얻음으로써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행되는 과정 자체로서 의미를 산출한다고 할 때, 전망이 부재한 황망한 현실 속에서도 사람은 자기 존재와 끊임없이 관계하며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다. ‘정윤’이 그러한 인식을 지닌 인물

이라는 사실은, 다른 이들이 땅굴을 파다 포기할 위기에 처했을 때 홀로 계속해서 바위를 깨며 “일의 승패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기대는 늘 배반을 당하기 마련”이며 “기대에 크게 자기를 거는 것보다는 우선 자기의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148-149)하다는 것을 생각하는 장면에서 이미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황선지대」의 결말을 단순히 전방 부재에 따른 허무주의의 표현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묵묵히 어둠을 뚫어지게 지켜보고”(154) 선 ‘정운’의 위치, 즉 텅 빈 창고라는 기표 위에서 「황선지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존재론적 문제를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다.

#### 4. 결론

이상의 논의에서는 공간적 장치를 통해 전후의 현실을 형상화한 오상원의 「황선지대」를 분석함으로써, ‘기지촌이라는 장소의 의미’와 ‘냉전 시대의 신식민주의 체제 하에서 사유해야 했던 존재론적 문제’를 고찰하였다. 「황선지대」는 한국의 전후 공간을 미군 기지와 기지촌이라는 두 축으로 이분화하여 두 장소를 대비시킨다. 기지촌은 미국의 물자와 원조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당대 한국 사회의 외세 의존적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소재였으며, 신식민주의와 여성 상품화, 기지촌의 건설과 유지에 공모한 한국 정부와 가부장적 남성 주체 등의 문제를 함의하는 상징적인 장소였다. 근대 식민주의 논리를 따르며 강점기에 폭압적인 제국 권력을 행사했던 일본과 달리, 미국은 남한 사회에서 우방국으로서 아시아적 후진성과 대비되는 이상적 표상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황선지대」에서 이상화된 장소처럼 묘사되는 미군 기지의 존재는 실상 기지촌의 인물들의 예측과 비참한 삶을 지속시킨다는 점에서 유토피아로 가장된 곳으로 보아야 한다. 「황선지대」에서 풍족한 물자로 가득한 “질서 정연한 도시”로

표현되는 미군 기지와 달리, 기지촌인 황선지대는 더럽고 황폐화된 곳으로 그려지며 전쟁 이전에 정상으로 간주되었던 삶의 방식과 가치가 무너진 전후의 시대적 분위기를 환기한다. 이곳의 구성원들이 지니는 존재론적 불구의식은 훼손되거나 유린되는 신체로서 표상되며, 이는 자주적 민족 국가를 건설하지 못하고 해방 이후에도 열강의 영향권에 놓임에 따라 주체성을 상실해야 했던 민족의 비극을 보여준다. 전쟁의 부산물로서 미군에 기생함으로써 존재했던 기지촌은 냉전으로 인한 미국 중심의 신식민주의 하 한국의 위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인 것이다.

황선지대는 ‘정윤’이 회상하는 이북의 고향과의 관계에서도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획득한다. 우선 장소를 공간과 시간의 통합물로 볼 경우, 현 시점의 황선지대와 과거 이북의 고향은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대립선상에 놓인다. 반공 학생운동을 함께하며 현실의 모순과 대결하고자 했던 ‘정윤’과 ‘영미’의 일상은 전쟁을 겪은 후 파괴되고 만다. 전후의 극한 상황에서 삶의 당위적 의미와 본질을 추구하는 자기실현이 불가능해지고 살아있다는 현실 자체가 가장 문제시되는 가운데, 작중 인물들은 전쟁 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절망과 허무에 잠식되며 민족과 이데올로기의 문제는 일종의 사치품으로 전락하고 만다. 한편 신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주목할 경우, 소련 군정이 점령한 북한과 미군정이 점령한 남한은 대응 관계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정윤’은 일본인들이 밀집해 사는 ‘본정’에서 수시로 자행되는 소련군의 폭력과 약탈을 그 어떤 민족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으로 인식한다. 이는 국가 윤리라는 미명하에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일체의 폭력에 대한 비판이다. 북한에서 소련이 점했던 지배적 위치를 남한에서는 미국이 점하고 있었으나, 월남한 ‘정윤’은 자주 국가의 건설을 도모해야 할 민족의 지도자들이 국민의 안위 보다는 집권을 위한 암투와 선동에 매달리는 것을 목도한다. 이로부터 『황선지대』에 묘사된 소련군의 행태가 단지 반공을 표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반도를 열강에 종속시키는 신식민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장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황선지대」는 전망이 부재한 절망적 현실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마주하기 위한 존재론적 탐색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한층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탐색은 황선지대와 미군 기지를 연결하는 땅굴 파기로 상징되는 작중 인물들의 기투 행위에서 드러난다. ‘정윤’ 일행은 땅굴을 통해 PX 물품을 훔쳐 기지촌을 탈출할 계획을 세우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라는 이상적인 장소로 탈주하고자 한다. 인물들이 꿈꾸는 장소는 구체적 전망을 담보한 곳이 아니라 막연한 유토피아로만 제시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지만, 그럼에도 자기 존재에 기대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며 미래의 삶에 대한 고민을 가능케 한다. 이때 땅굴은 전형적인 한계 상황의 형상화인 동시에, 피투적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스스로 자기 존재를 구성해나가는 현존재의 기투의 무대로서 제시된다. ‘정윤’ 일행의 절도는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나 전쟁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고 재기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철이’를 통해 제기되는 실존적 물음의 필요성은 마지막까지 남는다. ‘정윤’의 인식에서 드러나듯 실존적 기투는 존재에 대한 답을 얻음으로써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행되는 과정으로서 유의미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황선지대」는 전망이 부재한 전후의 현실 속에서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존재론적 탐색을 지속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김상선, 『신세대작가론』, 일신사, 1964.  
김우중, 『동인문학상 작품론』, 『사상계』, 1960.2.  
오상원 외, 『신세대를 말하는 신진작가 좌담회』, 『현대문학』, 1956.7.  
오상원, 『초조한 마음』, 『한국전후문체작품집』, 신구문화사, 1963.  
\_\_\_\_\_, 『실존을 들먹이며』, 『한국현대문학전집』 33권, 삼성출판사, 1981.  
\_\_\_\_\_, 『오상원 중단편선: 유예』, 문학과지성사, 2008.  
\_\_\_\_\_, 『오상원 작품집』, 지식을만드는 지식, 2010.  
유종호, 『도상의 문학-오상원론』, 『현대한국문학전집』 7권, 신구문화사, 1968.  
이어령, 『저항의 문학』, 경지사, 1959.  
장준하, 『장준하문집 3: 사상계지 수난사』, 10주기추모문집간행위원회 편, 사상, 1985.  
최일수, 『우리 문학의 현대적 방향』, 『자유문학』, 1956.12.  
하태원, 『1945년 北 진주 소련의 붉은 군대는 해방군 아닌 약탈군이었다』, 『동아일보』, 2010.03.10.

2. 단행본

- 구인환 외, 『한국전후문학연구』, 삼지원, 1995.  
김건우,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2003.  
김윤식, 『현대문학의 논리』, 일지사, 1974.  
도린 매시, 정현주 역, 『공간, 장소, 젠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_\_\_\_\_, 박경환·이영민·이용균 역, 『공간을 위하여』, 심산, 2016.  
배경열, 『한국 전후 실존주의 소설 연구』, 태학사, 2001.  
서울역사박물관, 『이태원: 공간과 삶』, 2010.  
서울역사편찬원 편, 『6·25전쟁과 1950년대 서울의 사회변동』, 서울역사편찬원, 2018.  
엄혜영, 『한국전후세대소설연구』, 국학자료원, 2004.  
유철상, 『한국 전후소설연구』, 월인, 2002.  
장 폴 사르트르, 박정태 역,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이학사, 2008.  
장양수, 『한국 실존주의소설 연구』, 새미, 2003.  
제프 말파스, 김지혜 역, 『장소와 경험』, 에코리브르, 2014.  
조건상 편, 『한국전후문학연구』, 성균관대출판부, 1993.  
조남현, 『현대소설의 해부』, 문예출판사, 1993.

팀 크레스웰, 심승희 역, 『장소』, 시그마프레스, 2012.  
프란츠 짐머만, 이기상 역, 『실존철학』, 서광사, 1987.

### 3. 논문

- 고명철, 『전후소설에 나타난 전망 부재의 한 양상: 오상원의 『황선지대』論』, 『반교어문연구』 제10권, 반교어문학회, 1999, 323-337면.
- 김도희, 『행동에서 찾는 삶의 의미: 오상원 중편 〈황선지대〉』, 『새얼어문논집』 제14권,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새얼어문학회, 2001, 111-131면.
- 김용희, 『오상원 전후소설의 실존의식』, 『비교문학』 제44권, 한국비교문학학회, 2008, 319-346면.
- 박신영, 『오상원 희곡 연구 - 현실의식과 극작기법을 중심으로-』, 『어문논총』 제27권 0호, 한국문학언어학회, 1993, 109-124면.
- 박훈하, 『기지촌 소설의 계보와 남성성의 확립 과정』, 『한국문학논총』 제19권, 한국문학학회, 1996, 119-153면.
- 송태욱, 『오상원 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오세정, 『앙드레 말로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실존의식과 존재의미』, 『비교문화연구』 제47권,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7, 191-216면.
- 이상구, 『신식민주의의 이데올로기적 虛實』, 『광장』 제106호, 세계평화교수협의회, 1982, 85-91면.
- 임준호, 『오상원 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6.
- 전현수, 『해방 직후 북한사 연구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소장 북한관계자료의 검토-』, 『역사와 현실』 제10권, 한국역사연구회, 1993, 295-313면.
- 정희모, 『오상원 소설의 새로움과 황선지대』, 『상허학보』 제13권, 상허학회, 2004, 425-453면.
- 최애순, 『1950년대 『상상계』와 전후 신세대 오상원의 휴머니즘』, 『우리문학연구』 제57권, 우리문학회, 2018, 407-447면.

<Abstract>

The study on Oh Sang-Won's *Hwangseonjidae*

—The meanings of post-war military campside town and  
ontological research on the human being

Kim, Seong-Eun

Oh Sang-Won's *Hwangseonjidae* (*Off Limits Yellow Area*) is a mid-length novel that embodies the realities of the post-war Korea and human ontological problems. This paper, considering that 'placement arrangement' is an important device in the formation of the meaning of the text, re-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litary campside town' and the 'US military base', and the 'military campside town' and the 'past North Korea', and analyzes the project of the characters of the work appearing in the digging of the 'tunnel' that connects the 'military camp town' and the 'US military base'. As a result, the ultimate goal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placeness' of the military campside town in the post-war Korean society and the ontological issues that had to be contemplated under the neocolonialism system of the Cold War era.

*Hwangseonjidae* divides Korea's post-war space into two axes, the US military base and the 'military campside town, and contrasts them with each other. The military campside town was a symbolic place that clearly showed the foreign-dependent structure of Korean society at the time, which had no choice but to rely on US supplies and aid. The US military base, described as an idealized place in the *Hwangseonjidae*, was actually a place disguised as a utopia in that it sustains the subjugation and

miserable lives of the people in the military campside town. On the other hand, the military campside town evokes the atmosphere of the postwar period when the way of life and values that were regarded as normal before the war collapsed, and shows the position of Korea under the neo-colonial system, which had to lose its subjectivity in the sphere of influence of the powers. Meanwhile, Hwangseonjidae and North Korea's hometowns are on a confrontation with the Korean War, but when the attention is given to neocolonialism, they form a response relationship in that they are subordinate to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the Soviet military government, respectively. Hwangseonjidae does not stay in showing a reality without a prospect, but attempts an ontological search to face it. This is evident in the project behavior by the characters who try to escape with their own utopia by digging a tunnel. At this time, the tunnel is presented as the stage of the human dasein's project to form an existential beings by itself despite being in a thrownness situation at the same time as the shape of a typical boundary situation. *Hwangseonjidae* reveals the author's perception that existential projects are not completed by obtaining answers to existence, but is meaningful as a process that is constantly implemented.

Key words: Oh Sang-Won, *Hwangseonjidae* [Off Limits Yellow Area], the post-war Korea, the military campside town, place(placeness), neocolonialism, an existential beings, project

투 고 일 : 2020년 8월 30일

심 사 일 : 2020년 8월 31일-9월 10일

게재확정일 : 2020년 9월 12일

수정마감일 : 2020년 9월 26일